

< 4책형 >

- 총평

16년 국가직 영어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특히 내려간 부분은 생활영어와 영속어(stick your nose in, scratch the surface)인데요. 그 이유는 굳이 해당 부분을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휘(futile, unprecedented, interfere)도 공무원 시험이 예상하는 범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문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줄 문제는 보통 틀린 것을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옳은 것을 골라야 해서 더 곤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독해는 특성상 한 두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추론의 기법으로 풀이가 가능했습니다.

오전에 다이아 선우빈샘, 고혜원샘과 함께 서울고등학교에 나가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시험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의 넘어짐에 다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곳곳이 다음 봉우리를 향해 등정하시길 바랍니다...!!

1.

정답 : 4

해설 : 바로 뒤의 unless절(~하지 않는 한)이 결정적인 힌트이다. 즉 “대중의 협조가 없는 한 오염을 제거하려는 운동은 무의미(futile)할” 것이다.

2.

정답 : 1

해설 : scratch the surface of (~의 겉을 만지다, 핵심에 닿지 못하다) = superficially dealt with(표면적으로만 다루어진)

3.

정답 : 1

해설 : B: 미안하지만 이 식탁보는 마지막 정리 상품이라서 환불이 안 됩니다.

A: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

B: 그게 영수증 아래에 쓰여져 있어요.

4.

정답 : 1

해설 : A: 루크야 안녕. 프린터 용지 좀 사다 줄래?

B: 뭐라고 했어? 프린터 잉크를 사다 달라고? 미안해. 여기선 전화가 잘 안 들려.

A: 이제 들리니?

5.

정답 : 4

해설 :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 ~ but the one ~

6.

정답 : 1

해설 : 본문 상단의 “It was just one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key word이다. 즉, “did the candidate appear to be a pleasant person (지원자가 유쾌하게 보이느냐?”가 정답을 찾는 주요 근거가 된다.

7.

정답 : 4

해설 : 보기 4번의 briefly(짧게)가 본문 중간의 "long stretches in advertising (광고업에 오래 근무했다)"에 위배된다.

8.

정답 : 2

해설 : 어린 소녀가 성인이 되는 의식에 대한 순서를 다룬 내용이다. 이러한 글에 계급간의 차등(differences in class status)을 알게 된다는 내용인 보기 2는 어색하다.

9.

정답 : 4

해설 : 제시문의 내용이 3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는 “fails the first two, but ~ in the concluding whale episode”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 4 앞의 “the three episodes”를 전제로 그 뒤에 제시문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10.

정답 : 2

해설 : 보기 2의 “uninfluential (영향력이 없는)”은 본문 말미의 “he was destined to influence ~ (그는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었다)”에 어긋난다.

11.

정답 : 2

해설 : stick one's nose in = poke one's nose into (쓸데없이 참견하다) = interfere in (간섭하다)

12.

정답 : 3

해설 : unprecedented (전례 없는) = unsurpassed (능가할 수 없는, 탁월한)

13.

정답 3번

해설

보기 1. much는 비교급 수식어이다. 따라서 바로 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 very 등이 적절하다. --> much[very] careless :

보기 2.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 whether he will ~ :

보기 3. 요구동사 뒤에 오는 that절의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 demanded that she (should) not leave ~

보기 4.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이다. the more 뒤에 이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expensive)가 필요하다. 3음절 이상에는 more를 붙여 비교급을 구성하므로 expensiver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

14.

정답 4번

해설 : 인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논한 글이다. 이는 두괄식인 첫 문장(인격이란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이다)에서 잘 드러나며, 그 이후에도 인격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해석 참조]

해석 : 인격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인간의 경험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권리이다. 인격은 자기이익을 천부적인 특성으로 인정하나, 인간의 주저하면서도 고무적인 협동에 신뢰를 두고 있다. 인격은 폭정을 몹시 싫어하며 무지를 참지 못하고, 항상 개선을 지향한다. 무엇보다도, 인격은 사실 앞에서 대단히 겸손하며, 진리가 쓰디쓴 약일 경우에도 진리와 자연적으로 결합한다.

15.

정답 : 3

해설 :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poor working memory, primary school)이 답이 되는 보기에도 반복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16.

정답 : 4

해설 : 본문 중간의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regulate it (그것을 규제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에서 추론된다.

17.

정답 : 3

해설 : 제시문 : animals / consciousness --> (B) : animals / a limited form of consciousness --> (C) : animals certainly can't report dreams / perception, memory, emotion --> (A) : these are three

18.

정답 : 4

해설 :

보기 1 :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 goes

보기 2 : 동사 수식 부사가 필요 --> obviously affects

보기 3 : help 목 (to) do --> help you concentrate

보기 4 : 보호동사 : prevent A from B(-ing)

19.

정답 : 1

해설 : 빈칸 바로 뒤의 "Your sympathy is irrelevant to the morality of your action (너의 동정심이 내가 하는 행동의 도덕성과는 무관하다)"에서 추론된다.

20.

정답 : 3

해설 : 빈칸 앞의 반전어(But)에 의해 그 앞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즉, "대부분의 파충류는 알에 대해 꽤 무관심하다. 그래서 그냥 태양과 계절에 부화를 맡겨둔다"는 내용이 But에 의해 연결되었으므로 그 뒤에는 이와 반대로 세심하게 돌본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빈칸 바로 앞의 "guarding their eggs"와도 잘 연결된다.